

報道資料 (Press Release)

·작성팀	조사연구팀
·담당자	이은정 선임연구원 (Tel:3775-3711) 윤진수 연구원 (Tel:3775-3703)
·보도일	2005. 2. 3(조간)예정

제 목 제3차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

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2002년부터 매년 애널리스트, 펀드매니저, 그리고 일반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

1. 조사목적

- 애널리스트, 펀드매니저 등 증권업종사자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①현재 우리나라 주가수준의 평가 및 저평가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②기업지배구조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③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**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**

2. 조사기간 : 2004. 11. 26 ~ 2004. 12. 31

3. 조사방법 : E-MAIL조사와 면접조사 병행

4. 조사수행기관 : (주) 리서치 앤 리서치

5. 표본추출방법 : 할당표집법(Quota-Sampling)

6. 표본수(응답자수) : 400명

7. 응답자특성

구분	전체	전문가			일반투자자
		애널리스트	펀드매니저	기타	
응답자(명)	400	103	58	39	200
구성비(%)	100	25.8	14.5	9.7	50.0

8. 조사결과 주요내용

-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지만,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“회계처리 투명성” 및 “주주권 보호”와 “공시”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, 내부감사기구 및 이사회는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한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 강화, 내부경영감시기능의 강화, 그리고 대주주의 독점적인 경영권 행사 완화가 중요하다고 지적됨

□ 설문결과 요약

구분	내용
지배구조 개선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짐(72%) →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은 “회계처리의 투명성(28%)”, “주주권보호(21%)”, 그리고 “공시(15%)” 순으로 나타남 ○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“회계감사 및 공시기준 강화(62%)”, “내부경영감시기능의 강화(59%)”, “대주주의 독점적 경영권행사 완화(54%)”를 지적함
주주권리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년대비 주주권리 보호 강화 (작년대비 0.45점 상승) ○ 주주권리 보호가 미흡한 원인으로 “대주주의 이기주의(34%)”, “경영진의 인식 부족(23%)”, “소수주주권 관련제도 불충분(17%)” 등을 지적함 ○ 주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형식적인 주주총회 (69%) ○ 경영진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치 및 외부견제 장치가 미흡(52%) →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“국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(45%)”, “소액주주에 의한 경영감시기능(30%)”, 그리고 “적대적 M&A시장(17%)”을 지적함 ○ 대주주가 기업경영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음(87%) →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“소액주주의 권리강화(16%)”와 “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(16%)”를 지적함
이사회 구성 및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(77%) 및 전문성 부족(59%) ○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“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갖춘 이사의 선임(54%)”이 가장 중요하며, 다음으로 “최고경영자와 이사회회장의 분리 또는 선임사외이사 선임(22%)”이 중요함 ○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(77%)
경영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회계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(회계 및 경영투명성이 여전히 불투명함: 42%) ○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 불충분(50%)
감사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내부감사인의 감사활동 부적절 (48%) → 이의 가장 주된 원인은 “경영자의 내부감사인 추천 및 선임(77%)”으로 나타남 ○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부적절 (35%) → 이의 가장 주된 원인은 “외부감사인과 기업간 종속적 관계(70%)”로 나타남
배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의 배당 증가 (작년대비 0.53점 상승) ○ 적정배당 실시시 장기투자 유도 가능(94%)

□ 첨부“제3차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(요약)” 참조

[첨부] 제3차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(요약)

I. 지배구조 개선현황 및 과제

□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: 72%

- 응답자의 72%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, 이는 2003년도 조사결과인 64%보다 8%p 상승한 것임
-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은 “회계처리의 투명성(28%)”, “주주권보호(21%)”, “공시(15%)”, “이사회의 구성(11%)”, “소유구조의 투명성(9%)”, “회계감사(6%)”, “이사회의 운영(5%)”, 그리고 “내부감사기구의 운영(5%)” 순으로 나타남
 - 이는 2003년도 설문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사회 및 내부감사기구의 효율적 운영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음
- 한편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선진국에 비해 기업지배구조의 질적수준이 아직은 “낮다”라고 지적
 - 그러나 10명 중 9명이 질적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2003년 설문결과와 비교해보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□ “회계, 감사 및 공시기준 강화” 와 “내부경영감시기능 강화” 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효과적

-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효과적 방안으로 “회계감사 및 공시기준 강화(62%)”, “내부경영감시기능의 강화(59%)”, “대주주의 독점적 경영권제한(54%)” 순으로 꼽힘(중복답변임)

1. 주주권리보호

□ 전년대비 주주권리 보호 강화

- 2003년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6%가 우리나라 기업은 “주주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”라고 답변하였으나,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8%만이 주주권리보호가 미흡하다고 답변하여 주주권 보호에 대한 시장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줌
 - 주주의 권리보호 수준은 5점만점 기준으로 2003년 2.3점에서 2004년에는 2.75점으로 유의적으로 상승함
- 한편 주주권 보호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34%가 “대주주의 이기주의”라고 답하였고, 23%가 “경영진의 인식부족”을, 17%가 “소수주주권 관련제도 불충분”을 지적함

□ 주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형식적인 주주총회

- 전체 응답자의 69%가 주주의견이 주주총회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으며, 그 이유로 “형식적인 주주총회진행”과 “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주주총회주도”가 각각 47%로 지적되었음
- 이는 2003년 설문조사와 동일한 결과로 형식적인 주주총회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

□ 경영진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치나 외부견제 장치는 여전히 미흡

- 주주권을 해치는 경영행위에 대하여 규제기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52%로 전년도(61%)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

- M&A나 기관투자자와 같은 외부견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%로 2003년도(53%)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,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“국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(45%)”가 가장 중요하며 “소액주주에 의한 경영감시기능(30%)”과 “적대적 M&A시장(17%)”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됨

□ 대주주가 기업경영권을 “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”에 87%가 동의

- 대주주가 매우 낮은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을 개인기업처럼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이에 동의하였으며,
- 그 해결책으로는 "소액주주의 권리강화(16%)"와 “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(16%)”를 지적함

□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 : 83%

- 응답자의 85%가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, 부당내부거래 적발시 89%가 투자축소 및 철회를 고려한다고 응답함
- 응답자의 83%는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해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함

2. 이사회 구성 및 운영

□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 : 77%

- 응답자의 대부분(77%)은 사외이사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“독립적이지 않다”고 답하였으며, 사외이사의 “전문성이 부족하다”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%를 차지함

□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와 감시기능 부족

- 전체 응답자의 70%가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원인으로 대부분이 “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(77%)” 을 꼽음

□ 경영자 선임과정 및 성과평가시스템 부적절

- 응답자의 36%가 경영자 선임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며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해서도 35%가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

□ 이사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있고 독립적인 이사 선임이 가장 중요

- 이사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“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갖춘 이사의 선임(54%)” 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“최고경영자와 이사회회장의 분리 또는 선임사외이사 선임(22%)” 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됨

□ 기업지배구조 개선시 사외이사제도가 매우 중요함

- 사외이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는 10명중 9명으로 나타났으며,
-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약 77%로 나타남

3. 경영투명성

□ 회계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

-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 및 경영투명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2%가 불투명하다고 응답함
- 한편 회계 및 경영투명성 수준이 5점만점으로 2003년에는 2.42점에서 2004년에는 2.69점으로 유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회계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

□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 불충분

- 기업현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50%로 나타났으며 충분하다는 의견은 9%에 불과함

4. 감사기능

□ 내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부적절

- 내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, 그 원인으로 “경영자의 내부감사인 추천 및 선임(77%)”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
- 한편 전체 응답자의 35%가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이 “적절하지 못하다”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, 이의 가장 큰 원인은 “외부감사인과 기업간 종속적 관계(70%)”와 “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장기간 감사로 인한 유착(17%)” 등을 지적함

5. 배당

□ 기업의 배당 증가

- 기업의 배당수준에 대해 43%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, 이는 2003년에 74%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아진 수치임
- 즉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배당수준이 작년대비 매우 상승하였다고 평가함
- 적정배당 실시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대부분(94%)이 장기투자 유도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함

II. 우리나라 주가수준 및 투자의견

□ 전체 응답자 중 80%가 우리나라 주가수준은 “저평가되어 있다” 고 답변

- 응답자 10명중 8명이 우리나라 주가수준은 “저평가 되고 있다”라고 평가하고 있으며,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“국내증시 투자자본의 단기성(41%)”과 “기업지배구조의 낙후성(18%)”을 지적함
- 2003년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%가 국내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“국내증시 투자자본의 단기성(28%)”과 “지배구조의 낙후성(%)”을 꼽음

□ 저평가 원인 개선시 주가지수 상승 정도 : 평균 54.4% 상승

(조사시점평균 : 872.95포인트 기준)

- 응답자들은 저평가 원인이 개선되면 종합주가지수가 1,348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
- 2003년도 설문조사 결과 저평가 원인이 개선되면 종합주가지수가 1,346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, 2004년도에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

□ 기업투자시 기업지배구조 고려

-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97%에 달했으며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시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한다는 응답자는 98%로 나타남
- 기업투자 결정시 “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(98%)”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며, 그 다음으로는 “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(70%)”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(중복답변)
- 이때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“회계정보의 신뢰성(66%)”과 “공시 등 경영투명성(51%)”으로 나타남(중복답변)
- 2003년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, 지배구조를 투자판단시 고려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93%로 나타났으며 “대주주의 전횡여부(28%)”와 “공시 등 경영투명성(25%)”이 중요한 투자판단요인으로 꼽힘

※첨부 : “제3차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”